

VI-3. 문항카드: 논술우수자전형(인문계열 1교시)

[성신여자대학교 문항정보]

1. 일반정보

| 유형 | 논술고사 | |
|----------------------|-----------------|---|
| 전형명 | 2023학년도 논술우수자전형 | |
|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 인문계열 / 문항 1-2 | |
| 출제범위 | 교육과정 과목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과 교육과정: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 도덕과 교육과정: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 사회과 교육과정: 통합사회, 경제, 사회·문화 |
| | 핵심개념 및 용어 | 조세, 복지, 노인연금, 평생연금, 공정, 정치, 학자금 대출 탕감 |
| 예상소요시간 | 100분 | |

2. 문항 및 제시문

【문제 1】

제시문 [가]의 K씨 사례를 A안과 B안에 각각 적용하여 순 혜택을 평가하고, [나]에 제시된 노인연금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가]를 활용하여 논하시오. (900±100자)

【문제 2】

제시문 [다]에서 제시된 공자와 정약용의 관점을 비교·요약하고, [라]의 미국 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밝히고, [라]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공자와 정약용의 관점에서 논하시오. (900±100자)

제시문

<가> 국가는 복지 제도를 통해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려고 노력하지만, 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한계가 나타나기도 한다. 복지 제도를 과도하게 시행하여 복지 제도에 관한 국민의 의존도가 높아지면 사회 전체적으로 근로 의욕이 저하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복지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복지 제도의 확대는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국가 재정의 부담은 과도한 조세 징수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국가의 복지 제도를 운용

하는 과정에서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를 선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복지와 증세 관련하여 두 개의 정책안을 비교해 봄으로써 복지 정책을 결정할 때 조세 정책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편의상 한 가상국가의 정부가 복지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과 조세 징수를 통해 얻는 재정이 같은 균형 재정을 달성한다고 가정하고 복지와 증세에 대한 정책으로 A안과 B안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리고 이 국가에서는 인간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득으로 1인당 연간 1,000만원이 필요하다고 가정하도록 하자.

A안: 무소득자에게는 1년에 1,000만원의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소득자에게는 소득의 20%만큼 복지 혜택을 축소한다. 연 소득이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5,000만원 초과분의 20%를 세금으로 징수한다.

B안: 복지 혜택으로 모든 국민에게 1년에 1,000만원의 기본소득을 제공한다. 모든 연 소득에 20%의 단일 세율을 부과한다.

여기서 연 소득은 조세 납부와 복지 혜택 수령 전의 소득이고, 순 혜택은 복지 혜택에서 조세납부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A안은 선별적으로 저소득층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안으로, 그 재원은 고소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통해 조달된다. 소위 ‘선별 복지와 선별 과세’의 조합이다. 반면 B안은 모든 국민에게 연 1,000만원의 기본소득이 제공되며, 그 재원도 모든 국민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보편 과세로 조달된다. K씨는 연 소득이 2,000만원이다. K씨의 경우 A안과 B안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자신에게 더 나은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일까?

<나> 가상국가 ‘좋은 나라’ 정부가 제안한 노인연금 50만원 인상 정책이 고령층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노인연금은 정부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이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60세 이상 전체 노인에게 지급하는 안이었다. 그러나 경제 상황과 예산 등 국가 재정을 고려하여 만 60세 이상인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이후 계속 증가하여 현재 월 4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노인연금 예산은 도입 초기와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지급액을 월 50만원으로 인상하는 데는 추가 소요 재원이 상당할 것으로 추산되지만, 정부는 아직 확실한 재원 마련 대책을 내놓지는 않았다. 이런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층 인구 중 노인연금 대상자가 아닌 30%에서는 “왜 70%만 주느냐, 60세 이상 전체 노인에게 지급해야 형평에 맞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노인연금은 ‘좋은 나라’ 정부의 또 다른 노후 대책 연금 제도인 평생연금과 비교해도 문제가 있다. 평생연금은 젊어서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노후에 기본 생활 수단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다. 이 나라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및 경기침체 상황이 심화되면서 보험료 인상, 소득대체율 인하, 연금수급 연령의 상향 조정 등 재정

안정화를 위한 평생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연금이 50만원으로 인상되면, 평생연금 평균 금액인 60만원과 별반 차이가 없어진다. 따라서 평생연금을 받는 60세 이상 중 노인연금 대상이 아닌 이들은 “월급에서 꼬박꼬박 떼서 보험료 내고 평생연금 받는 사람이 바보가 된 것 같다.”는 불만을 제기하기도 한다. 또한 평생연금을 받으면서 노인연금도 받는 고령층에서도 불만이 나온다. 노인연금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나라에서는 평생연금 수령액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 노인연금액이 줄어드는 ‘평생연금 연계 감액 제도’를 실시하기 때문이다. 노인연금을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이 제도에 대해 평생연금 성실납부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향후 평생연금 연계 감액 제도 폐지나 노인연금의 역할과 재원 마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다> 『논어』 「계씨」에서 공자는 제자 염유(冉有)에게 말했다. “나라와 집을 소유한 자는 백성의 수가 적음을 걱정하지 말고 백성이 고르지 못함을 근심해야 하며 가난함을 근심하지 말고 편안하지 못함을 근심해야 한다. 고르게 하면 가난함이 없고 조화를 이루면 적음이 없고 편안하면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다.” 정치에서 균평(均平)과 균분(均分)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정약용은 정치의 근원을 따져 묻는 『원정(原政)』에서 치우친 봉당을 없애고 공도(公道)를 넓혀 현명하고 능력있는 자를 우대하는 정치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약용이 말한 공도는 정치의 공정한 길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공정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가 제시한 국가 운영의 청사진은 『경세유표(經世遺表)』라는 유명한 책에 잘 나타난다. 정약용은 토지제도를 말할 때 균전(均田), 균산(均産)의 의미를 비판했다. 농사짓는 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토지를 운영하게 해야지 국가가 일일이 민의 살림을 똑같이 챙길 수 없다는 말이다. “먼저 백성의 살림을 엿보고 부유한 자의 것을 덜어내서 가난한 자에게 보태고자 하니 이것은 이롭지 않은 헛된 일이다.” 백성이 자신의 직업을 갖고 능력에 따라 자립하게 해야지 처음부터 국가가 일률적으로 균전·균산을 추구할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이것은 과거의 신분제 사회,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분수에 맞는 것이란 무엇인지 되묻게 한다. 아마도 각자의 분수, 각자의 능력에 맞게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유학자들이 생각한 공정의 의미였을 것이다.

<라>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역대 최대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미국 대학교 등록금에 대한 관심이 높다. 백악관에 따르면 미 정부는 현재 대학 재학생을 포함해 2022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학자금 대출을 모두 상환하지 못한 국민들 중 본인의 연 소득이 12만 5,000달러¹⁾(한화 대략 1억 6천 3백만 원, 부부 합산 25만달러)보다 적은 경우 1만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 주기로 했다. 탕감 금액은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을 받는 경우 2만달러로 늘어난다. 백악관은 이러한 정책이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았다. 학자

1) 환율을 \$1=1,300원으로 계산함.

금 대출 문제는 미국 내에서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는 사회적 이슈 중 하나로 꼽힌다. 대학생의 절반이 넘는 55%가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백악관에 따르면 현재 1인당 학자금 대출 평균은 약 3만 7000달러(약 5,180만원)에 달한다. 사회생활 시작과 함께 이미 몇 천만원의 빚을 떠안고 있는 것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조차도 상원의원이 된 2004년이 돼서야 학자금 대출을 모두 갚았다고 한다. 당시 그의 나이 43세였다. 현재 미국의 연 평균 사립대 등록금은 3만 8,185달러, 공립대는 2만 2,698달러 수준이다. 대출 금액이 크다 보니 현재 학자금 대출자 5명 중 1명이 50대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갚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이를 바이든 대통령이 탕감해주겠다고 하니 학자금 대출을 아직 상환하지 못한 이들의 입장에서 반가울 수 밖에 없다.

물론 반대의견도 있다. 대학 교육으로 혜택을 받는 것은 개인인데 반해 이 비용을 나라에서 부담하는 것이 불공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대출금을 성실하게 모두 상환한 사람들이나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불공평할 수 있다. 또한 충분히 갚을 여력이 있는 국민들에게도 이러한 혜택을 주는 것이 정당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벤 새스 상원의원은 “결국 바이든 대통령의 부채 탕감 계획은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화이트칼라 대학생을 위한 돈을 지원하도록 강요한다”고 비판했다. 마이클 켈리 하원의원 역시 “배관공과 목수에게 월스트리트 고문과 변호사의 빚을 대신 갚으라고 할 것인가. 불공정할 뿐 아니라 나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3. 제시문 요약

- 제시문 <가>는 과세와 복지를 함께 고려할 때 선별 복지-선별 과세의 A 방안과 보편 복지-보편 과세의 B 방안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문이다. 정부로부터 얻는 혜택과 납부하는 세금의 차이인 ‘순 혜택’이 두 대안에서 동일하기 때문이다. 조세 정책이나 복지 정책만 떼어서 보면 A안과 B안이 크게 다르지만, 조세와 지출을 묶어 함께 고려할 경우 경제적 실질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바람직한 조세 정책이나 복지 정책을 논하려면 복지 정책의 방향성과 그에 따른 재원 마련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관련 교과서:

- 김진영 외(2018). 『경제』 (pp. 63~66), 미래엔
- 박형준 외(2018). 『경제』 (pp. 47~54), 천재교육
- 유종열 외(2018). 『경제』 (pp. 53~58), 비상
- 육근록 외(2018). 『통합사회』 (pp. 154~156), 동아출판
- 손영찬 외(2018). 『사회·문화』 (pp. 154~164), 미래엔

- 박영민 외(2018). 『화법과 작문』 (pp. 138~139), 비상

○ 제시문 <나>는 정부가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정책을 둘러싼 문제점을 다룬 기사들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가상국의 상황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이 제시문은 현재 노인연금 인상을 위한 재정확충 문제, 대상이 60세 이상인 소득 하위 70%로 한정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형평성, 평생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 평생연금과의 연계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노인연금 인상을 위한 기본적인 재원 확충 방안의 부재, 노인연금 예산이 도입초기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0%에 해당하는 고령자는 복지혜택에서 제외되는 문제다. 당초 60세 이상 전 국민에게 똑같이 지급되도록 설계된 보편적 복지제도가 재원과 예산 등의 이유로 현재와 같은 선별적 복지제도로 바뀌면서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갈등을 유발한다. 다음으로 노인연금과 평생연금 간의 형평성 문제도 보여준다. 노인연금과 달리 평생연금은 젊은 시절 자신이 낸 보험료를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하여 기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평생연금 수급자와 노인연금 수급자 간 차이가 크지 않아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문제다. 또한 두 가지 연금을 동시에 수령하는 경우에도 오랫동안 평생연금을 납부한 사람은 노인연금을 삭감당하고 평생연금 가입기간이 짧은 사람은 오히려 다 받게 되는 역차별 현상에 불만이 제기될 수 있음을 제시문은 보여주고 있다.

관련 교과서:

- 육근록 외(2018). 『통합사회』 (pp. 164~167), 동아출판
- 손영찬 외(2018). 『사회·문화』 (pp. 154~164), 미래엔
- 최형용 외(2018). 『언어와 매체』 (pp. 206~227), 창비
- 방민호 외(2018). 『언어와 매체』 (pp. 246~260), 미래엔
- 박영민 외(2018). 『화법과 작문』 (pp. 181~189), 비상
- 이도영 외(2018). 『화법과 작문』 (pp. 232~235), 창비

○ 제시문 <다>는 유교사상을 정립한 공자와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의 공정에 대한 관점을 보여주는 지문이다. 공자는 하·은·주 삼대의 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유교사상을 정립하였으며, 이 유교사상은 동양의 도덕, 교육, 정치 등 여러 분야에서 풍부한 지혜와 가치를 제공해왔다. 공자가 활동했던 주나라 말기는 기존의 사회 제도와 질서가 무너지고 패권을 잡기 위한 제후국들의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던 혼란기였다. 공자는 인간 존엄과 인간에 대한 사랑을 도덕 성립의 근거로 확립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치유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다. 제시문 <다>의

전반부에서 공자는 정치를 모든 사람들이 고르게 분배를 받고, 편안하고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는 것으로 봤다. 정약용은 조선 후기 사회를 부와 귀의 불공정한 분배로 인해 망국의 조짐이 엿보이는 난세로 규정했다. 그의 개혁안은 공정 사회를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구상으로 가득했다. 오랫동안 이상 정치의 상징인 요순시대를 탐구했던 정약용은 능력과 노력에 따른 공정한 대우야말로 성왕들의 성공 비결이었다고 결론지었다. 덕과 능력을 함께 갖춘 이들을 공정하게 선발하고 임무를 부여한 후 그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관련 교과서:

- 정창우 외(2018). 『윤리와 사상』 (pp. 39~40; p. 57; pp. 166~169), 지학사
- 황인표 외(2018). 『윤리와 사상』 (pp. 179~182), 지학사
- 육근록 외(2018). 『통합사회』 (pp. 254~259), 동아출판
- 이도영 외(2018). 『화법과 작문』 (pp. 232~235), 창비
- 김동환 외(2018). 『국어』 (pp. 232~240), 교학사
- 신유식 외(2018). 『국어』 (pp. 174~197), 미래엔

- 제시문 <라>는 바이든 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다루고 있다. 대학 교육은 계층의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는 사회 계층 이동의 효율적인 수단으로 여겨지는 반면 그 비용은 점차 개인이 부담하기 힘들 정도로 높아졌다. 오랜 역사를 가진 미국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은 이러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공공 정책의 일환으로 소득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성실하게 빚을 상환하면 남은 금액을 탕감해주는 등 공적 자금으로 학생들의 대학 교육 비용을 일정 부분 지원해주는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대학 등록금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이러한 정책적 장치로도 학자금 대출이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아지자 일시적인 탕감 정책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제시문 <라>에서는 과도한 학자금 대출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대학 졸업생들이 일괄적인 학자금 대출 탕감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제시되어 있다. 반면, 개인의 대학 교육비를 세금으로 부담하는 데에 대한 반대 및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집단의 불만 등이 드러나 있다.

관련 교과서:

- 육근록 외(2018). 『통합사회』 (pp. 164~167), 동아출판
- 이진석 외(2018). 『통합사회』 (pp. 172~176), 지학사

- 유종열 외(2018). 『경제』 (pp. 181~184), 비상
- 김진영 외(2018). 『경제』 (pp. 179~180), 미래엔
- 박형준 외(2018). 『경제』 (pp. 186~187), 천재교육
- 최형용 외(2018). 『언어와 매체』 (pp. 206~227), 창비
- 방민호 외(2018). 『언어와 매체』 (pp. 246~260), 미래엔
- 박영민 외(2018). 『화법과 작문』 (pp. 181~189), 비상
- 이도영 외(2018). 『화법과 작문』 (pp. 232~235), 창비
- 김동환 외(2018). 『국어』 (pp. 232~240), 교학사
- 신유식 외(2018). 『국어』 (pp. 174~197), 미래엔

4. 출제의도

- 이번 인문계열 1교시 논술고사는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국어>, <통합사회>,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경제>, <사회·문화> 등의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지는 다양한 주제와 개념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여 실제 삶에서 직면하는 구체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문제 1은 균형 재정을 이룬다는 가정하에서 복지 정책을 설정할 때 조세 정책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석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출제하였다. 지문에 제시된 정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바탕으로 노인연금과 평생연금의 운용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제시문에서 비판적으로 평가한 뒤,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내용을 종합하여 노인연금의 지급과 관련한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도록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논리적 분석, 비판적 평가, 창의적 응용 능력을 포괄하는 종합적 사고 역량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문제 2는 공정과 정치에 대한 공자와 정약용의 관점을 담은 제시문을 소개하고, 이러한 관점을 미국 바이트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적용하여 정책의 찬반 의견을 서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고전에 나타난 공정에 대한 대조적인 관점을 이해하고 이를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학자금 대출 관련 시사 이슈에 적용하여 비판적 분석력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창의적 사고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한 주제와 개념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한 수험생이라면 충분히 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사례와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내용 및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자료들로 제시문을 구성하였다.

5.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 | | | |
|------------------|--|--|------------------------|
| 적용 교육과정 | 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2.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6] “도덕과 교육과정” 3.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 | |
| 성취기준 / 영역별 내용 | 1. 국어과 교육과정 | | |
| | 과목명: 국어 | | 관련 |
| | 성취 기준 1 | [10국02-02] 매체에 드러난 필자의 관점이나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는다. (p. 59) | 제시문 <가> ~ <라> |
| | 성취 기준 2 | [10국03-02] 주제, 독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설득하는 글을 쓴다. (p. 61) | 제시문 <가> ~ <라> |
| | 과목명: 화법과 작문 | | 관련 |
| | 성취 기준 1 |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 (p. 82) | 제시문 <가> <다> |
| | 성취 기준 2 | [12화작03-06] 현안을 분석하여 쟁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담은 건의하는 글을 쓴다. (p. 82) | 제시문 <나> <라> |
| | 과목명: 독서 | | 관련 |
| | 성취 기준 1 | [12독서01-02]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 (p. 94) | 제시문 <다> <라> |
| | 성취 기준 2 | [12독서02-05] 글에서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창의적으로 읽는다. (p. 95) | 제시문 <가> <나> |
| | 과목명: 고전읽기 | | 관련 |
| | 성취 기준 1 | [12고전02-03] 현대 사회의 맥락을 고려하여 고전을 재해석하고 고전의 가치를 주체적으로 평가한다. (p. 169) | 제시문 <다> |
| | 2. 도덕과 교육과정 | | |
| 과목명: 생활과 윤리 | | 관련 | |
| 성취 기준 1 | [12생윤03-02] 공정한 분배를 이룰 수 있는 방안으로서 우대 정책과 이에 따른 역차별 문제를 분배 정의 이론을 통해 비판 또는 정당화할 수 있으며, 사형 제도를 교정적 정의의 관점에서 비판 또는 정당화할 수 있다. (p. 41) | 제시문 <나>×<라> | |

| | | | |
|--|--------------------|--|--------------------------|
| | 성취 기준 2 | [12생윤01-02] 현대의 윤리 문제를 다루는 새로운 접근법 및 동서양의 다양한 윤리 이론들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다양한 윤리 문제에 적용하여 윤리적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p. 39) | 제시문 <다> |
| | 과목명: 윤리와 사상 | | 관련 |
| | 성취 기준 1 | [12윤사04-01] 동·서양의 이상사회론들을 비교하여 현대 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추론할 수 있다. (p. 59) | 제시문 <다> <라> |
| | 성취 기준 2 | [12윤사04-05] 자본주의의 규범적 특징과 기여 및 이에 대한 비판들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인간의 존엄과 품격을 보장하는 자본주의 사회로 발전해 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p. 59) | 제시문 <나> <라> |
| | 3. 사회과 교육과정 | | |
| | 과목명: 통합사회 | | 관련 |
| | 성취 기준 1 | [10통사05-02]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과 발전을 위해 요청되는 정부, 기업가, 노동자,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설명한다. (p. 131) | 제시문 <가> <나> |
| | 성취 기준 2 | [10통사06-02] 다양한 정의관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여 평가한다. (p. 133) | 제시문 <다> <라> |
| | 과목명: 경제 | | 관련 |
| | 성취 기준 1 | [12경제01-03]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제도를 파악한다. (p. 220) | 제시문 <가> <다> |
| | 성취 기준 2 | [12경제01-04] 가계, 기업, 정부 등 각 경제 주체가 국가 경제 속에서 수행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이해한다. (p. 220) | 제시문 <가> <나> <라> |
| | 성취 기준 3 | [12경제02-02] 경쟁 시장에서 결정된 시장 균형을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총잉여의 극대화)이 이루어짐을 이해한다. (p. 220) | 제시문 <가> <나> |
| | 과목명: 사회·문화 | | 관련 |
| | 성취 기준 1 | [12사문04-03] 다양한 사회 불평등 양상을 조사하고 그와 관련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p. 250) | 제시문 <나> <라> |
| | 성취 기준 2 | [12사문04-04] 사회 복지의 의미를 설명하고 복지 제도의 유형과 역할 및 한계를 분석한다. (p. 250) | 제시문 <나> <라> |

나) 자료 출처

| 도서명 | 저자 | 발행처 | 발행연도 | 쪽수 | 관련자료 (교과서 등) | 재구성여부 |
|--|---------------------|---------------------|------------|---------|-----------------|-------|
| 사회문화 | 손영찬 외. | 미래엔 | 2018 | 163 | 교과서 | ○ |
| 조세와 재정의 미래: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한 과세 방향 | 홍순만 | 문우사 | 2021 | 351-353 | | ○ |
| How to increase Taxes on the Rich | Mankiw, N.G. | The MIT Press | 2021 | 137-140 | | ○ |
| ‘노인연금’, 선택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 금진호 | 쿠키뉴스 | 2022.04.25 | | | ○ |
| 평생연금 개혁한다는데... 선진 외국은 어떻게 했나. | 서한기 | 연합신문 | 2022.08.29 | | | ○ |
| 국민 50% “평생연금 개혁, 보험료 인상보다 수급 연령부터 올리자” | 허난설 | 경향신문 | 2022.08.04 | | | ○ |
| 올해 조세부담률 23.3% '사상 최대'...내년엔 감세로 하락 | 한종수 | 파이낸셜 뉴스 | 2022.09.12 | | | ○ |
| 공정(公正)을 생각한다. | 백민정 | 다산연구소 | 2022.08.22 | | | ○ |
| 아시아의 MZ세대와 사회변화(1) 다산 정약용의 공정론과 MZ세대 | 김호 | 서울대학교 아시아 연구소 | 2022.05.23 | | | ○ |
| “오바마도 43세까지 고통 속에 살았다” - 미대학생 괴롭히는 무서운 이 녀석 | 이상규 | 매일경제 | 2022.09.03 | | | ○ |
| 미학자금 빚 탕감에 ‘실끌’ --- 백악관, 의원 저격까지 | 조슬기 | 아시아경제 | 2022.08.28 | | | ○ |
| 바이든, 400조원 학자금 빚 탕감 승부수 — 공화 “매표 행위” . | 문병기, 김현수 | 동아일보 | 2022.8.26 | | | ○ |
| Do Americans support President Biden’ s student loan plan? | Galston, William A. | Brookings | 2022.09.06 | | | ○ |
| Who really benefits from student-loan forgiveness? | Demsas, Jerusalem. | <i>The Atlantic</i> | 2022.04.28 | | | ○ |
| What is the impact of | Patel, Dee. | <i>PennToda</i> | 2022.08.31 | | | ○ |

| | | | | | | |
|---|------------------------------------|--------------------|------------|--|--|---|
| Biden's student loan forgiveness plan? | | J. | | | | |
| Biden's Student Loan Forgiveness Program is Poorly Targeted | William J. Luther | AIER | 2022.08.29 | | | ○ |
|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평생연금 재정추계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 | 백혜연 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6 | | | ○ |
| 평생연금, 공공의 적인가 사회연대 임금인가 | 오건호 | 책세상 | 2021 | | | ○ |
| 조선후기 실학과 다산 정약용 | 김용흠 | 혜안 | 2020 | | | ○ |
| 공자에서 다산 정약용까지 유교 인문학의 동서철학적 성찰 | 임현규 | 파라아카데미 | 2019 | | | ○ |
| 미국 대학의 등록금 정책과 학자금 정책 분석 | 고장완 | 한국비교교육학회 | 2016 | | | ○ |
| Biden's Student Loan Forgiveness Plan: Your Questions, Answered | Ron Lieber and Tara Siegel Bernard | The New York Times | 2022.08.29 | | | ○ |

※ 참고자료는 저자와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를 명기하며, 교과서 자료와 교과서 외 자료로 구별하여 제시함.

6. 문항 해설

- 【문제 1】의 논제는 제시문 <가>를 통해 조세 정책을 판단할 때에 지출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A안과 B안이 매우 다르다고 생각했을 듯 하다. 또한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도 달랐을 수 있다. 그러나 A안과 B안의 경제적 실질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연 소득 2,000만원인 K씨의 경우, 정부로부터 얻는 혜택과 납부하는 세금의 차이인 ‘순 혜택’이 600만원으로 두 대안에서 동일하기 때문이다. 복지 정책만 떼어서 보면 A안과 B안이 크게 다르지만, 조세와 지출을 묶어 함께 고려할 경우 두 안이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어느 정도 수준의 복지를 지향하는가에 따라 조세 정책의 방향성 혹은 재원 마련에 대한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제시문 <나>는 공적연금에 가입하여 일정기간 납부한 후 혜택을 받는 평생연금과 달리, 선별적 노인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노인 연금의 월지급액이 평생연금과 연계될 경우 축소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제시문 <가>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노인연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별 과세를 통한 선별 복지’와 ‘보편 과세를 통한 보편 복지’ 정책이 서로 유사한 효과가 있을 수 있으므로, 평생연금과는 독립적으로 운용하고 어떻게 과세에 대한 정책을 마련을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치적인 성향에 따

라서 ‘선별 과세 - 선별 복지’를 선호하기도 하고, ‘보편 복지’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하고 있지만, 재원 마련에 대한 과세 정책에 대한 논의는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 답안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요구된다.

제시문 <가>에서 조세 정책을 판단할 때에 지출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K씨 사례의 분석을 통해 A안과 B안에서 순 혜택이 600만원으로 동일하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나>에서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도입된 노인연금을 하위 70%에게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평생연금 수급자와 노인연금 수급자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평생연금과 노인연금을 동시에 받지만 평생연금 연계 제도로 인해 수급하는 연금의 액수가 낮아지는 노인층의 상대적 불공정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시문 <나>에서 노인연금이 가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생연금과 독립적으로 노인연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으며, 노인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한 조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유추하여 비판적으로 논할 수 있어야 한다.

- 【문제 2】의 논제는 공자와 정약용이 제시한 공정의 개념과 현재 미국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정책 중 하나인 바이든 정부의 학자금 대출 일시적 탕감 정책을 통합하여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전은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삶을 이해하는 지혜의 정수로써, 현재의 사회 상황을 이해하는 중요한 틀을 제시해준다. 제시문 <다>에 나타난 공자와 정약용이 제시한 공정의 대조적인 개념에 대하여 먼저 파악하고, 이러한 이론적 관점을 적용하여 제시문 <라>에 나타난 바이든 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의 찬반 의견을 분석하고 정책 실행상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추가: 공자와 정약용의 관점에 근거하여 찬반 의견을 분석하거나, 자신의 찬성, 혹은 반대의견을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방식 모두 정답으로 처리한다.) 제시문 <다>에서 나타난 공자의 관점은 정치가 모든 사람들이 고르게 분배를 받고, 편안하고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공자의 관점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은 모든 국민들에게 고르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대학에 들어가지 않았거나 그동안 성실한 노동의 댓가로 학자금 대출을 미리 갚은 사람들에게는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경세유표』에 나타난 정약용의 관점에서 노력에 따른 대우를 공정으로 보았다. 이에 따르면, 개인이 노력과 재능을 발휘해 대학에 입학하였기 때문에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인 경우, 학자금 대출 탕감의 혜택을 주는 것은 정당한 대우이다. 이러한 두 가지 관점은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의 중요한 근거로 쓰일 수 있다.

○ 답안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요구된다.

제시문 <다>를 통해 공정에 대한 상반된 시각을 파악하고 그러한 시각의 근거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제시문 <라>에 나타난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의 주요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제시문 <다>에 나타난 두 가지 시각에 기초하여 정책의 정당성, 타당성, 효과성 등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혹은, 자신의 찬성, 혹은 반대 의견을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공정의 시각에서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갖는 효과성과 그 한계성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밝힐 수 있어야 한다. 모두에게 고르게 적용되지 못하는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공자의 관점을, 능력주의 관점에서 이러한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정약용의 관점에 기반하여 정책의 찬반 논란에 대한 근거를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여야 한다.

7. 채점 기준

【문제 1】 배점 50점

| 영역 | 세부내용 | 배점 |
|------------------|--|----|
| 이해력 | • 제시문 <가>의 복지와 과세에 대한 두 안이 궁극적으로는 동일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올바르게 이해하였는가? | 15 |
| 비판적 분석력과 창의적 사고력 | • 제시문 <나>에서 노인연금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파악하고 있는가? • 제시문 <나>의 노인연금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가>의 내용을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제시하였는가? | 25 |
| 논리적 표현력 | • 논술 내용의 정합성, 정확한 단어 선택 및 문장 간 논리적 연결성 | 10 |

문제 1번의 답안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제시문 <가>에서 복지와 과세 방안을 모두 고려하여 K씨의 사례에 적용하면 순혜택이 600만원으로 A안과 B안의 경제적 실질은 동일하다고 파악한다.

둘째, 제시문 <나>에서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도입된 노인연금을 하위 70%에게만 선별적으로 제공하고, 또한 가입자가 재원을 부담하는 공적연금인 평생연금과 연계함으로써, 상위 30%의 평생연금 가입자와 두 연금의 동시 수급자들이 상대적으로 불공정해지는 문제점이 있음을 파악한다.

셋째, 제시문 <나>에서 노인연금이 가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생연금과 독립적으로 노인연금을 운용해야 하며, 노인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한 조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문 <가>를 통해서 유추한다.

<문제1>

- ① 제시문 <가>에서 조세 정책을 판단할 때에 지출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파악하고, A안과 B안의 경제적 실질은 동일하다는 것을 파악하여 기술한다.
- ② 제시문 <나>에서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도입된 노인연금으로 인해 평생연금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겪게 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기술한다.
- ③ 제시문 <나>에서 노인연금이 가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문 <가>에 제시된 조세 정책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과 평생연금과는 독립적으로 노인 연금을 운용하는 방안을 논리적으로 제시한다.

▶ 앞에서 제시한 내용과 조건에 의거하여, 답안은 다음과 같이 6등급으로 평가한다.

- 1등급: 위의 3가지를 모두 정확히 수행하고, 적절한 논증력과 표현력을 갖춘 경우
- 2등급: 위의 3가지를 모두 수행했으나,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 3등급: 위의 3가지 중 2가지를 정확히 수행하고, 적절한 논증력과 표현력을 갖춘 경우
- 4등급: 위의 3가지 중 2가지를 수행하고,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 5등급: 위의 3가지 중 1가지를 수행하고, 적절한 논증력과 표현력을 갖춘 경우
- 6등급: 위의 3가지 중 1가지를 수행하고,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문제 2】 배점 50점

| 영역 | 세부내용 | 배점 |
|------------------|--|----|
| 이해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문 <다>에 나타난 공자와 정약용의 공정에 대한 개념의 차이를 올바르게 비교하여 요약하였는가? | 15 |
| 비판적 분석력과 창의적 사고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자가 주장한 절대적인 평등의 관점에 기반하여 제시문 <라>에 제시된 바이든 행정부의 등록금 탕감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논리적이고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는가? • 정약용이 주장한 능력주의에 기반하여 제시문 <라>에 제시된 바이든 행정부의 등록금 탕감 정책에 대한 찬성 입장을 논리적이고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는가? • (혹은) 제시문 <라>에 제시된 바이든 행정부의 등록금 탕감 정책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개하였는가? • 공자와 정약용의 관점에서 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창의적으로 제시했는가? | 25 |
| 논리적 표현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술 내용의 정합성, 정확한 단어 선택 및 문장 간 논리적 연결성 | 10 |

문제 2번의 답안은 다음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제시문 <다>에서 공자는 한정된 재화일지라도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을 주장하며, 정약용은 능력에 따른 차등적 대우를 주장하는 것을 파악한다.

둘째, 제시문 <라>에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가지는 긍정적 효과인 55%가 넘는 대학 졸업생들의 부채 완화와 더불어 대학 비진학자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등의 부정적 측면이 동시에 있음을 파악한다. 자원의 균등한 분배를 통해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야 한다는 공자의 관점에서 보면 일부 대학 진학자들의 대출을 일괄적으로 탕감해주는 바이든 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은 공정한 정책이 아니다. 특히, 개인의 대학 교육 비용을 공적인 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공자의 관점에서는 불공정에 가깝다. 반면, 노력과 능력에 따른 차등적 대우를 주장하는 정약용의 관점에서는 자신의 능력과 노력을 통해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의 수혜자가 되는 것은 공정하다는 것을 파악한다.

셋째,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공자와 정약용의 관점에서 정책 실행상의 불공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서술한다.

<문제 2>

① 제시문 <다>에서 공자는 한정된 재화일지라도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을 주장하며, 정약용은 능력에 따른 차등적 대우를 주장하는 것을 파악하여 요약한다.

② 가안: 제시문 <라>에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가지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비판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서술한다.

나안: 제시문 <라>에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가지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비판을 공자와 정약용의 관점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서술한다.

③ 제시문 <라>에서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의 효과는 살리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한다.

앞에서 제시한 내용과 조건에 의거하여, 답안은 다음과 같이 6등급으로 평가한다.

- 1등급: 위의 3가지를 모두 정확히 수행하고, 적절한 논증력과 표현력을 갖춘 경우
- 2등급: 위의 3가지를 모두 수행했으나,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 3등급: 위의 3가지 중 2가지를 정확히 수행하고, 적절한 논증력과 표현력을 갖춘 경우
- 4등급: 위의 3가지 중 2가지를 수행하고,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 5등급: 위의 3가지 중 1가지를 수행하고, 적절한 논증력과 표현력을 갖춘 경우
- 6등급: 위의 3가지 중 1가지를 수행하고,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 글자수에 제한(900자±100자)이 있으므로, 800자 미만의 경우 아래와 같이 하향 평가한다.

700자~799자: 1등급 하향, 600자~699자: 2등급 하향, 600자 미만: 6등급 부여, 백지답안: 7등급 부여

- ※ 하위 문항이 있는 경우 칸을 나누어 채점 기준을 작성함.
- ※ 채점 기준은 문항의 출제의도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이어야 함.

8. 예시답안

【문제 1】

- 제시문 <가>에 나타난 A안과 B안은 각각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정책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이 두 가지 정책은 기본적으로 다르게 보이지만, 연 소득 2,000만원인 K씨의 사례에 적용해 정부로부터 받는 복지 혜택과 납부하는 세금의 차이인 ‘순 혜택’만을 따져보면, 두 가지 안이 모두 순 혜택 600만원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조세와 지출을 함께 고려하면 A안과 B안에서 모두 소득자에게 동일한 순 혜택이 제공되므로, 두 정책의 차이는 찾을 수 없다.

제시문 <나>에는 노인연금 인상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점이 언급되었다. 이 중 가장 큰 문제점은 아직 노인연금 인상을 위한 재원 확충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고, 평생연금 개혁과 비교해 볼 때 이에 대한 논의조차 본격화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노인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갈등 문제, 노인연금 수급자와 평생연금 수급자 간 형평성 문제, 평생연금 연계 금액 제도로 인한 노인연금 수급자의 상대적 불공정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방안은 제시문 <가>의 예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라는 정치적, 이념적 논쟁보다는 복지 혜택과 재원마련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모색해야 한다. 보편 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 보편 복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연금이 60세 이상 전체 노인에게 동일하게 지급되지 못하는 이유는 재정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노인연금 재정이 확보되어 평생연금과 독립적으로 운용된다면, 평생연금과 연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노인연금 수급자 문제도 해결 가능할 것이다. 한편 증세가 어렵다면, 소득 하위 70%의 노인을 위해 노인연금을 50만원으로 올리는 대신 현재 지급되는 40만원 보다 적은 돈을 모든 노인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아니면 노인연금 수급 대상자의 연령을 60세에서 70세 이상 노인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문제 2】

- 가안: 공자는 정치가 백성들이 고르게 자원을 분배받고, 편안하고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는 것으로 보았다. 반면, 정약용은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른 차등적

대우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모든 사람이 자원을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아닌, 능력을 갖춘 사람,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의 자립에 초점을 맞춘다.

나는 미국 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불공정한 정책이므로 반대한다.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다수의 국민들이나 자신의 노동의 댓가로 성실하게 모든 부채를 다 갚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공정한 정책이다. 또한 졸업 후에 소득이 높아지는 혜택은 개인이 누리지만, 이들의 학자금 대출은 세금으로 탕감해주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또한 개인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 소득 이하의 대출자에게 모두 같은 금액을 탕감해주는 것 또한 큰 비용이 들어가는 이 정책의 효과를 떨어뜨린다.

이 정책의 부작용을 줄이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공자의 관점에 기반하면 탕감의 금액을 낮추더라도 모든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업훈련 비용을 지급해주거나, 이미 모든 학자금 대출을 상환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불해 주는 방식 등이 있다.

둘째, 정약용의 관점에서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1만 달러 혹은 2만 달러를 일괄적으로 탕감해주는 것 또한 불공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재학생의 경우 개인의 학업성취도에 따라 탕감 금액을 높이거나 졸업생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성실하게 대출을 납부해온 사람에게는 탕감 금액을 높여주는 등 차등적으로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는 등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 나안: 공자는 정치가 백성들이 고르게 자원을 분배받고, 편안하고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는 것으로 보았다. 반면, 정약용은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른 차등적 대우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모든 사람이 자원을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아닌, 능력을 갖춘 사람,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의 자립에 초점을 맞춘다.

미국 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은 공자의 관점에서 보면 불공정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모든 국민들에게 고르게 이익이 돌아가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다수의 국민들이나 자신의 노동의 댓가로 성실하게 모든 부채를 다 갚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공정한 정책이다. 즉, 졸업 후에 소득이 높아지는 혜택은 개인이 누리지만, 이들의 학자금 대출은 세금으로 탕감해주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반면, 이 정책은 정약용의 관점에서 보면 공정하다. 자신의 노력과 재능을 통해 대학에 진학한 사람들 중, 자신의 소득만으로 모든 부채를 갚기 어려운 사람들의 자립을 도와주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 정책의 부작용을 줄이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공자의 관점에 기반하면 탕감의 금액을 낮추더라도 모든 국

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업훈련 비용을 지급해주거나, 이미 모든 학자금 대출을 상환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불해 주는 방식 등이 있다.

둘째, 정약용의 관점에서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1만 달러 혹은 2만 달러를 일괄적으로 탕감해주는 것 또한 불공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재학생의 경우 개인의 학업성취도에 따라 탕감 금액을 높이거나 졸업생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성실하게 대출을 납부해온 사람에게는 탕감 금액을 높여주는 등 차등적으로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는 등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VI-4. 문항카드: 논술우수자전형(인문계열 2교시)

[성신여자대학교 문항정보]

1. 일반정보

| 유형 | 논술고사 | |
|----------------------|-----------------|--|
| 전형명 | 2023학년도 논술우수자전형 | |
|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 인문계열 / 문항 1~2 | |
| 출제범위 | 교육과정 과목명 | - 국어과 교육과정: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 사회과 교육과정: 통합사회, 경제, 세계사, 세계지리, 사회·문화 |
| | 핵심개념 및 용어 | 세계화, 탈세계화, 블록 경제, 인플레이션, 반도체 동맹, 무역 갈등 |
| 예상소요시간 | 100분 | |

2. 문항 및 제시문

(1) 문항

【문제 1】

제시문 <가> 현상이 발생한 이유를 제시문 <나>의 ㉠과 ㉡을 토대로 분석하고, 제시문 <나>에 나타난 변화가 세계 경제와 국제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문 <다>의 ㉢과 ㉣의 측면에서 논술하시오. (900±100자)

【문제 2】

제시문 <가>의 국제 정세 속에서 제시문 <라>의 지도처럼 반도체 동맹이 전개될 때 한국의 딜레마는 무엇인지 기술하고, 제시문 <마>의 상황에서 요구되는 한국의 대응 방향을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논술하시오. (900±100자)

(2) 제시문

<가>

자원의 무기화가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기업들에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련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용어는 ‘온쇼어링(on-shoring)’이다. 생산기지를 자국 내에 두도록 유도하거나 혹은 자국 내 기업에 아웃소싱하는 것을 뜻한다. 기업의 생산 시설을 인건비 등이 비교적 저렴한 국가로 옮기는 ‘오프쇼어링(off-shoring)’과 반대되는 말이다. 보호무역주의의 강화와 함께 자주 언급됐던 ‘리쇼어링(re-shoring : 생산 시설을 다시 본국으로 이전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이처럼 ‘온쇼어링’ 전략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지만 자국 내에만 생산 시설을 두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최근 자주 사용되는 용어가 ‘니어쇼어링(near-shoring : 본국으로의 이전이 어려울 경우 인접 국가로 생산 시설을 옮기는 것)’과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 동맹 국가들 간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용어는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이들이 보여주는 공통점은 명확하다. 글로벌 기업들에게 ‘그저 썬’ 지역이 더 이상 생산기지로서의 매력이 없다는 점이다. 재난 상황 혹은 정치적인 갈등 상황의 위험을 피하는 것이 기업들에는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나>

자유무역을 표방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부작용을 비판하는 이들 사이에서도 상호 연결성을 통해 수많은 혜택을 맞본 인류가 과거와 같은 냉전 체제로 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지난 수십 년간 세계화를 통해 자리 잡은 고도로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과 시장, 일상의 모습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견고하고, 상호 호혜적이어서 말처럼 쉽게 끊어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은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가 마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결정타가 되었다. 이에 2021년 다보스 포럼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 새로운 형태의 세계화가 필요하다는 맥락에서 ‘그레이트 리셋(great reset)’이 제시됐다. ㉡팬데믹(pandemic)을 교훈으로 삼아 지속 가능성, 회복력을 갖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투자하여 새로운 형태의 세계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지난 30년간 우리가 경험해 왔던 신자유주의 경제 체계에 근간한 세계화의 양상은 달라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며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철수하는 것에 대해 영국 가디언은 ‘세계화의 만조(滿潮)는 이미 지났다. 이제 남은 건 물이 얼마나 많이 빠지느냐다’라고 평했다. 소비에트 연방 시절이던 1990년 미국 맥도널드의 모스크바 입점이 세계화 시대의 도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었다면, 맥도널드의 러시아 시장 철수는 거대하고 급격한 탈세계화 흐름을 상징한다. 개방과 자유로운 교역, 다국적 기업으로 대표

되는 세계화 패러다임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부터 이미 쇠퇴 중이었다. 서방국가에서는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와 트럼프주의(미국 우선주의)로 대변되는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고개를 들었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패권 경쟁으로 번져나갔다. 이런 와중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침공한 것은 세계화의 바탕이 된 국제법 존중과 상호 계약에 따른 신의 성실의 원칙이 무너졌음을 뜻한다. 무엇보다 중국이 불법을 자행한 러시아를 비난하기는커녕 뒤에서 암묵적으로 지원하면서 신냉전 구도를 보이며 세계화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다>

지난 수십 년간 각국 경제는 세계화의 수혜를 크게 입었다. 중국을 비롯한 저임금 국가에 생산설비를 집중하고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생산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었다. 기업의 매출과 이익은 획기적으로 늘었고 증시는 장기 호황을 구가했다. 기술 개발로 생산단가가 하락하면서 물가 상승도 억제됐다. 인플레이션 없는 장기 성장의 골디락스*가 펼쳐진 것이다. 그러나 미·중 무역 전쟁, COVID19 팬데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어지며 개방과 자유로운 교역, 다국적 기업으로 대표되는 세계화 패러다임은 쇠퇴하고 있다. 기존 세계화의 퇴조는 막대한 비용을 수반한다. 그 중 하나가 ㉔인플레이션이다. 원자재와 식량, 반도체 등의 공급망 경색과 물류대란, 신냉전 양상이 우려되는 대립 구도 속에 전 세계가 촘촘하게 연결됐던 기존의 경제 질서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재화와 서비스의 자유로운 흐름이 막히면 거래 비용이 증가해 가격이 오르고, 일부 국가들이 특정 상품이나 자원을 무기화할 경우 가격 상승 압력은 더욱 강해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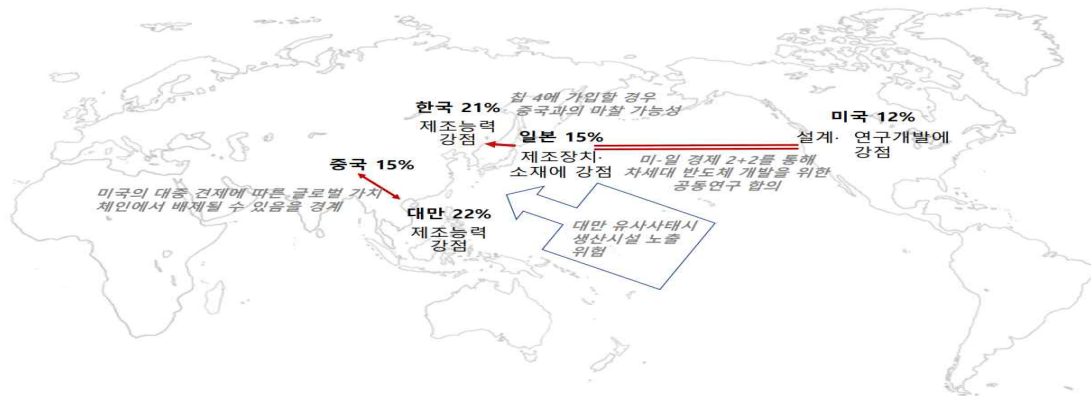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순식간에 에너지와 식량 공급, 금융 시스템의 단절을 경험한 세계 각국은 이제 더 높은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제품을 생산·운송할 수 있도록 확실한 우방국들로 공급망을 재편하기 시작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기술이나 원자재를 비우방국가에 의존할 경우 뒤따를 수 있는 위험성을 자각했기 때문이다. 투자은행 JP 모건에 의하면 애플은 올해 연말까지 전체 아이폰14 물량의 5%를 인도에서 만들고, 차츰 인도 내 생산을 늘려 2025년에는 전체 아이폰의 25%를 인도산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미·중 갈등의 심화 탓에, 생산과 판매를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해 온 애플마저 ‘탈 중국 노선’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구글 역시 스마트폰 신제품 픽셀7 물량 일부를 인도 공장에서 만들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 중심의 서방과 그에 맞서는 중국·러시아를 두 축으로 삼는 ㉕ ‘경제의 블록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골디락스: 경제가 높은 성장을 이루고 있더라도 물가 상승이 억제되는 상태

<라>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3월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4자 연합인 ‘칩4(Chip4)’를 제안하며 한국의 참여를 요구했다. 아래의 지도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팹리스(설계)의 주도권을 지니고 있는 미국과 함께 파운드리(위탁생산) 강자 대만과 메모리 강자 한국, 주요 기술 국가 중 하나인 일본이 동맹하여 반도체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는 2015년 중국이 선언한 ‘반도체 굴기’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자 반도체 경쟁 전략

이라 할 수 있다.



칩4와 중국의 지정학적 특성과 전체 반도체 생산에 기여하는 비율

(출처: 미국반도체산업협회 SIA)

중국은 대만과 일본이 중국에 맞서 ‘반도체 장벽’을 세우고 있음을 비판하며, 반도체 외교는 현실적인 이해관계의 문제임을 명시하고 한국은 미국의 강압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중국은 한국 반도체의 수출액 중 60%는 홍콩을 포함한 중국이 차지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파운드리 공장이 전무한 미국이 원천 기술 보유국이라는 이유로 반도체 산업에서 세계화된 분업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마>

2022년 5월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이 법과 합의를 무시하고 국제 질서에 도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략적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는 대중국 전략을 발표했다. 미국의 대중국 전략 키워드는 ‘투자, 공조, 경쟁’이다. 미국의 대중국 전략 선언 직전,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을 공식화하였다. 무역, 공급망, 환경, 조세 등 4대 주요 분야에 대한 투자와 파트너 국가들과의 공조를 위해 무역 규범 수립에 무게를 둔 것이다. IPEF의 쿼드(Quad) 성명이 의미하듯 세계는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가치 규범을 공유하는 공급망과 중국 중심의 사회주의 가치 규범이 중심이 되는 공급망으로 이분화되고 있다. 중국의 동아시아 안보 시스템에 대한 위협은 경제·이데올로기의 문제와 맞물려 미·중 무역갈등과 함께 확대되고 있다. 2016년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와 2019년 한일 역사 갈등이 빚어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 등을 볼 때, 경제적 상호의존은 종종 경쟁국과 상대국을 압박하는 무기로 활용된다. 한중 수교 30년이 되었지만 중국과의 신뢰 관계가 온전히 구축되었다고는 보기 힘들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품의 80%, 수입품의 64%가 중간재이므로 이에 대한 수출을 통제한다면 중국 역시 피해가 만만치 않다. 중국의 가공무역 비중이 축소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부품 및 반제품을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여 가공 수출하는 형태는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21

년 기준, 중국은 한국의 2대 투자대상국이고 한국은 중국의 3대 교역국이다. 한국의 산업용 원자재 수입의 중국 의존도는 G7 국가보다 높은 33.4%(2020년 기준)이다. 중국은 ‘한국이 미국의 제재와 대중국 수출 타격이라는 난제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라고 평했다.

3. 제시문 요약

- 제시문 <가>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생산 기지를 자국 내에 두도록 유도하거나 자국 내 기업에 아웃소싱하는 것을 뜻하는 온쇼어링(on-shoring), 기업의 생산 시설을 인건비 등이 비교적 저렴한 국가로 옮기는 오프쇼어링(off-shoring), 생산 시설을 다시 본국으로 이전하는 리쇼어링(re-shoring), 본국으로의 이전이 어려울 경우 인접 국가로 생산 시설을 옮기는 니어쇼어링(near-shoring, 동맹 국가들 간 공급망을 구축하는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의 개념과 현상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의 팬데믹과 정치적 갈등 등 상황의 위험을 피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움직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시문 <가>는 최근의 국제 정세와 무역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관련 교과서:

- 이진석 외(2018), 『통합사회』 (pp.150-157, 240-254), 지학사
- 육근록 외(2018), 『통합사회』 (pp.146-153, 222-237), 동아출판
- 박형준 외(2018), 『경제』 (pp.118-121, 144-149), 천재교육
- 최준채 외(2018), 『세계사』 (pp.192-207), 미래엔
- 구정화 외(2018), 『사회·문화』 (pp.194-196), 천재교육
- 박영민 외(2018), 『화법과 작문』 (pp.162-173), 비상교육
- 신유식 외(2018), 『국어』 (pp.116-133), 미래엔
- 방민호 외(2018), 『언어와 매체』 (pp.246-260), 미래엔
- 박영목 외(2018), 『독서』 (pp.64-66), 천재교육

- 제시문 <나>는 자유무역을 표방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움직임이 후퇴하고 보호무역을 앞세우는 새로운 형태의 세계화 혹은 탈세계화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최근의 국제적인 상황을 다루고 있다. 팬데믹(pandemic)을 계기로 원활한 공급망, 지속 가능성과 회복력을 갖춘 무역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새로운 형태의 세계화

가 모색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더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하여 국제 정세가 다시 냉전 구도로 재편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제시문 <나>를 통해 변화하는 국제 정세와 함께 기존의 세계화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는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관련 교과서:

- 이진석 외(2018), 『통합사회』 (pp.150-157, 240-254), 지학사
- 육근록 외(2018), 『통합사회』 (pp.146-153, 222-237), 동아출판
- 박형준 외(2018), 『경제』 (pp.118-121, 144-149), 천재교육
- 최준채 외(2018), 『세계사』 (pp.192-207), 미래엔
- 구정화 외(2018), 『사회·문화』 (pp.194-196), 천재교육
- 박철웅 외(2018), 『세계지리』 (pp.10-13), 미래엔
- 박영민 외(2018), 『화법과 작문』 (pp.162-173), 비상교육
- 신유식 외(2018), 『국어』 (pp.116-133), 미래엔
- 방민호 외(2018), 『언어와 매체』 (pp.246-260), 미래엔
- 박영목 외(2018), 『독서』 (pp.64-66), 천재교육

- 제시문 <다>는 미·중 무역 전쟁, COVID19 팬데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어지며 개방과 자유로운 교역, 다국적 기업으로 대표되는 세계화 패러다임이 쇠퇴하고 있으며, 세계화의 쇠퇴가 인플레이션, 경제의 블록화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계화의 쇠퇴는 원자재와 식량, 반도체 등의 공급망 경색을 강화하기 때문에 재화와 서비스의 자유로운 흐름이 막혀 비용 증가와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특히, 일부 국가가 특정 상품이나 자원을 무기화할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은 더욱 강해지게 되며, 이러한 무역 갈등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들은 우방국 위주로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교과서:

- 이진석 외(2018), 『통합사회』 (pp.150-157, 240-254), 지학사
- 육근록 외(2018), 『통합사회』 (pp.146-153, 222-237), 동아출판
- 박형준 외(2018), 『경제』 (pp.118-121, 144-149), 천재교육
- 최준채 외(2018), 『세계사』 (pp.192-207), 미래엔
- 구정화 외(2018), 『사회·문화』 (pp.194-196), 천재교육

- 박영민 외(2018), 『화법과 작문』 (pp.162-173), 비상교육
- 신유식 외(2018), 『국어』 (pp.116-133), 미래엔
- 방민호 외(2018), 『언어와 매체』 (pp.246-260), 미래엔
- 박철웅 외(2018), 『세계지리』 (pp.188-191), 미래엔
- 박영목 외(2018), 『독서』 (pp.64-66), 천재교육

- 제시문 <라>는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4자 연합인 ‘칩4(Chip4)’ 참여에 대한 한국의 딜레마 상황을 담고 있다. 제시문의 지도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팹리스(설계)의 주도권을 지니고 있는 미국, 파운드리 강자 대만, 메모리 강자 한국, 주요 기술 국가 중 하나인 일본이 동맹을 결성하여 반도체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한국이 미국의 강압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을 담고 있다.

관련 교과서:

- 이진석 외(2018), 『통합사회』 (pp.150-157, 240-254), 지학사
- 육근록 외(2018), 『통합사회』 (pp.146-153, 222-237), 동아출판
- 박형준 외(2018), 『경제』 (pp.118-121, 144-149), 천재교육
- 최준채 외(2018), 『세계사』 (pp.192-207), 미래엔
- 구정화 외(2018), 『사회·문화』 (pp.194-196), 천재교육
- 박영민 외(2018), 『화법과 작문』 (pp.162-173), 비상교육
- 신유식 외(2018), 『국어』 (pp.116-133), 미래엔
- 방민호 외(2018), 『언어와 매체』 (pp.246-260), 미래엔
- 박영목 외(2018), 『독서』 (pp.64-66), 천재교육

- 제시문 <마>는 패권 경쟁으로 번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양상을 담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대중국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을 공식화하였다. 이처럼 세계는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가치 규범을 공유하는 공급망과 중국 중심의 사회주의 가치 규범이 중심이 되는 공급망으로 이분화되고 있으며, 경제·안보·이데올로기 문제 등은 미·중 무역갈등과 함께 확대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교과서:

- 이진석 외(2018), 『통합사회』 (pp.150-157, 240-254), 지학사
- 육근록 외(2018), 『통합사회』 (pp.146-153, 222-237), 동아출판
- 박형준 외(2018), 『경제』 (pp.118-121, 144-149), 천재교육
- 최준채 외(2018), 『세계사』 (pp.192-207), 미래엔
- 구정화 외(2018), 『사회·문화』 (pp.194-196), 천재교육
- 박영민 외(2018), 『화법과 작문』 (pp.162-173), 비상교육
- 신유식 외(2018), 『국어』 (pp.116-133), 미래엔
- 방민호 외(2018), 『언어와 매체』 (pp.246-260), 미래엔
- 박영목 외(2018), 『독서』 (pp.64-66), 천재교육

4. 출제의도

- 2023학년도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계열 논술고사는 수험생들의 종합적인 사고능력과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글쓰기 역량을 측정하고자 했다. 문제 구성은 고등학교 사회과,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한 주제와 개념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한 수험생이라면 충분히 답할 수 있도록 했다.
-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국어』, 『독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통합사회』, 『경제』, 『사회·문화』, 『세계지리』, 『세계사』 등에서 다루는 주제인 세계화,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국가 간 갈등, 인플레이션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문제로 구성했다.
- 다양한 종류의 글에서 발췌한 제시문을 읽고, 이를 주어진 시간 내에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는지, 개념을 구체적인 사례에 합당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여 수험생의 독해력,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 논리적 표현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시문 내용을 비교, 분석, 적용, 평가함을 넘어 종합적인 사고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여 완결된 답안을 작성하도록 문제를 출제했다.

5.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 | |
|---------|--|
| 적용 교육과정 | 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2.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
| 성취기준 / | |

| | | | |
|--------|--------------------|---|--------------------|
| 영역별 내용 | 1. 국어과 교육과정 | | |
| | 과목명: 국어 | | 관련 |
| | 성취 기준 1 | [10국02-02] 매체에 드러난 필자의 관점이나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는다. (p. 59) | 제시문 <가>~ <마> |
| | 성취 기준 2 | [10국03-02] 주제, 독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설득하는 글을 쓴다. (p. 61) | 제시문 <가>~ <마> |
| | 과목명: 화법과 작문 | | 관련 |
| | 성취 기준 1 |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 (p. 82) | 제시문 <가>~ <마> |
| | 성취 기준 2 | [12화작03-06] 현안을 분석하여 쟁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담아 건의하는 글을 쓴다. (p. 82) | 제시문 <가>~ <마> |
| | 과목명: 독서 | | 관련 |
| | 성취 기준 1 | [12독서01-02]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 (p. 94) | 제시문 <가>~ <마> |
| | 성취 기준 2 | [12독서02-05] 글에서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창의적으로 읽는다. (p. 95) | 제시문 <가>~ <마> |
| | 성취 기준 3 | [12독서03-02]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p. 97) | 제시문 <가>~ <마> |
| | 과목명: 언어와 매체 | | 관련 |
| | 성취 기준 1 | [12언매01-03] 의사소통의 매개체로서 매체의 유형과 특성을 이해한다. 오늘날의 의사소통 매개체로 활용되는 광고, 인터넷, 이동 통신 기기 등 다양한 매체들의 유형을 알고, 그 유형별 특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p. 110) | 제시문 <가>~ <마> |
| | 성취 기준 2 | [12언매03-06] 대중매체가 지닐 수 있는 영향력과 같은 장점과 상업성, 지배층의 이데올로기 제약 등의 단점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함으로 주체적으로 향유하도록 한다. (p. 115) | 제시문 <가>~ <마> |
| | 2. 사회과 교육과정 | | |
| | 과목명: 통합사회 | | 관련 |
| | 성취 기준 1 | [10통사08-01] 세계화 양상을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하고, 세계화 시대에 나타나는 문제를 조사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p. 136) | 제시문 <가>~ <마> |
| | 성취 기준 2 | [10통사08-02] 국제 갈등과 협력의 사례를 통해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의 역할을 파악하고, 평화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p. 136) | 제시문 <가>~ <마> |
| | 과목명: 경제 | | 관련 |
| | 성취 | [12경제03-03]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발생 원인과 경제적 영향을 알아 | 제시문 |

| | | | |
|--|-------------------|--|------------|
| | 기준 1 | 보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p. 223) | <가>~<마> |
| | 성취 기준 2 | [12경제04-01] 비교 우위에 따른 특화와 교역을 중심으로 무역 원리를 파악하고, 자유 무역과 보호 무역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이해한다.(p. 224) | 제시문<가>~<마> |
| | 과목명: 세계사 | | 관련 |
| | 성취 기준 1 | [12세사06-01] 냉전 체제의 배경과 특징을 알아보고, 냉전 종식 이후 세계 질서의 재편에 대해 조사한다. (p. 215) | 제시문<나> |
| | 성취 기준 2 | [12세사06-02] 세계화와 과학·기술 혁명이 가져온 현대 사회의 변화를 파악하고, 지구촌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p. 215) | 제시문<나> |
| | 과목명: 사회·문화 | | 관련 |
| | 성취 기준 1 | [12사문05-02] 세계화 및 정보화로 인한 변화 양상을 설명하고 관련 문제에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p. 252) | 제시문<가>~<마> |

나) 자료 출처

| 도서명 | 저자 | 발행처 | 발행연도 | 쪽수 | 관련자료 (교과서 등) | 제구성여부 |
|------------------------------------|-----|---|------|-----------------|-----------------|-------|
| 『미중 전쟁 앞으로의 세계』 | 이지예 | 가나 | 2021 | 7쪽, 163-165쪽 | 제시문<나> | ○ |
| “세계화의 종말, 논쟁에서 현실로” | 이정훈 | 한경 | 2022 | | 제시문<나> | ○ |
| 두산백과 | | http://doopedia.co.kr | | | 제시문<다> | × |
| 환경경제용어사전 | | http://dichankyung.com | | | 제시문<가> | ○ |
| “애플, ‘인도산 아이폰’ 확 풀린다. 빅테크 탈중국 가속화” | 이선희 | 한국일보 | 2022 | | 제시문<다> | × |
| “탈세계화와 신냉전” | 김성재 | 여성경제신문 | 2022 | | 제시문<다> | ○ |
| “탈세계화, 신냉전, 인플레이션” | 안상현 | 조선일보 | 2022 | | 제시문<다> | ○ |
| “세계화 시대의 끝” | 송승환 | 중앙일보 | 2022 | | 제시문<가> | ○ |
| “세계경제의 블록화” | 이태규 | 서울경제 | 2022 | | 제시문<다> | ○ |

| | | | | | | |
|------------------------------------|--------------------------------|---------------|------|--|--------|---|
| 미중 신냉전? : 코로나19 이후의 국제관계 | 가와시마 신, 모리 사토루, 이용빈 역 | 한울 아카데미 | 2021 | | 제시문<마> | ○ |
| SIA 통계 | 미국반도체 산업협회 | 미국반도체 산업협회 | 2022 | | 제시문<라> | ○ |
| 中 “韓, 난처한 상황이라도 美에 맞설 용기 가져라 “ | 이준태 | 머니S | 2022 | | 제시문<라> | ○ |
| 칩4 동맹 참여 불가피하지만 중국발 쇼크 대비해야 | 세계일보 사설 | 세계일보 | 2022 | | 제시문<마> | ○ |
| 칩4, 사드에 참여한 입장차 확인한 한·중 외교장관 회담 | 경향신문 사설 | 경향신문 | 2022 | | 제시문<마> | ○ |
| 尹 정부의 칩4 딜레마, 원칙이 해법 | 한국경제 칼럼 | 한국경제 | 2022 | | 제시문<마> | ○ |

6. 문항 해설

- 【문제 1】은 제시문 <가>에서 다루고 있는 니어쇼어링, 프렌드쇼어링 현상이 발생한 이유를 제시문 <나>에서 제시한 세계화와 팬데믹을 토대로 분석하고, 제시문 <나>에 나타난 새로운 형태의 세계화 혹은 탈세계화로의 변화가 제시문 <다>의 인플레이션과 경제의 블록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술하는 문제이다.
- 제시문 <가>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공급망 재편 현상을 다룬 신문 기사를 발췌·재구성하였으며, 제시문 <나>는 미·중 전쟁과 앞으로의 세계에 대해 다룬 책의 내용을 발췌·재구성하였다. 그리고 제시문 <다>는 세계화의 쇠퇴를 다룬 신문 기사를 발췌·재구성하였다.
- 답안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요구된다.
- 제시문 <가>를 통해 여러 국가와 글로벌 기업들이 산업 공급망을 본토와 가깝거나 동맹국으로 재편하는 현상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제시문 <나>를 통해 세계화 시대의 국제 무역 및 국제 분업의 특성과 탈세계화 시대의 국제 무역의 특성을 비교하여 팬데믹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여 논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제시문 <다>를 통해 최근 벌어지고 있는 세계화 쇠퇴 현상을 파악하고 이러한 현상이 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하며, 자유무역의 기조를 약화하여 이념과 가치 등을 매개로 한 경제의 블록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을 논술할 수 있어야 한다.
- 【문제 2】는 제시문 <가>에 나타난 공급망 재편 현상을 파악하고, 그것을 토대로 제시문 <라>의 지도를 분석하여 칩4 반도체 동맹 가입에 대한 한국의 딜레마와 대

응 방안을 논술하는 문제이다.

- 제시문 <가>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공급망 재편 현상을 다룬 신문 기사를 발췌·재구성하였으며, 제시문 <라>는 칩4 반도체 동맹 가입에 대한 한국의 딜레마를 다룬 책과 보고서를 발췌·재구성하였다. 그리고 제시문 <마>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신냉전 구도 형성을 다룬 책의 내용을 발췌·재구성하였다.
- 답안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요구된다.

제시문 <가>를 통해 여러 국가와 글로벌 기업들이 산업 공급망을 본토와 가깝거나 동맹국으로 재편하는 현상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라>를 통해 공급망 재편과 관련한 칩4 반도체 동맹 움직임을 이해하고, 동맹 가입 여부에 대한 한국의 딜레마를 동맹인 미국과의 관계, 최대 교류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제시문 <마>를 통해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패권 경쟁 양상을 파악하고,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의 대응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논술할 수 있어야 한다.

7. 채점 기준

【문제 1】배점 50점

| 영역 | 세부내용 | 배점 |
|------------------|---|----|
| 이해력 | 제시문 <가>에서 다루고 있는 니어쇼어링, 프렌드쇼어링 현상의 원인을 제시문 <나>에서 제시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팬데믹을 토대로 논리적으로 서술하고 있는가? | 20 |
| 비판적 분석력과 창의적 사고력 | 제시문 <나>에 나타난 새로운 형태의 세계화 혹은 탈세계화로의 변화가 제시문 <다>의 인플레이션과 경제의 블록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논리적으로 서술하고 있는가? | 25 |
| 논리적 표현력 |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어법에 맞게 서술하였는가? | 5 |

문제 1번의 답안은 다음의 세 가지 기준으로 평가한다.

첫째, 제시문 <가>에서 다루고 있는 니어쇼어링, 프렌드쇼어링 현상이 <나>에서 제시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팬데믹을 토대로 발생한 것임을 파악하여 논리적으로 서술한다. (20점)

- ① 제시문 <가>에서 다루고 있는 니어쇼어링과 프렌드쇼어링이 세계화의 새로운 국면(탈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들이 선택한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구축 방안을 이해하고 있는가? (6점)

- ② 제시문 <나>를 통해 세계화 시대와 탈세계화 시대의 글로벌 공급망의 특징을 이해하고 그 차이를 비교하고 있는가? (7점)
- ③ 팬데믹이 기존 글로벌 공급망에 미친 영향(세계 경제를 이어주던 글로벌 공급망이 마비 - 공급망 병목현상)을 이해하고, 이로 인한 변화(지속 가능성, 회복력을 갖춘 인프라 구축 - 새로운 분업체계의로의 재편)를 분석하고 있는가? (7점)

둘째, 제시문 <나>에 나타난 새로운 형태의 세계화 혹은 탈세계화로의 변화가 제시문 <다>의 ㉔ 인플레이션과 ㉕ ‘경제의 블록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논리적으로 서술한다. (25점)

- ① 제시문 <나>를 통해 세계화의 쇠퇴 현상을 초래한 이유들을 파악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야기한 급격한 탈세계화 흐름으로 인해 세계화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음을 이해하고 있는가? (8점)
- ② 최근 벌어지고 있는 세계화의 쇠퇴와 세계화의 새로운 형태의 세계화가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이해하고, 이로부터 인플레이션의 부작용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고 있는가? (9점)
- ③ 미국 중심의 서방세계와 그에 맞서는 중국·러시아를 두 축으로 형성되는 신냉전의 구도가 국제 정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이로 인해 ‘세계 경제의 블록화’가 촉진될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서술하고 있는가? (8점)

셋째,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어법에 맞게 서술하였는가? (5점)

앞에서 제시한 내용과 조건에 의거하여, 답안은 다음과 같이 6등급으로 평가한다.

- 1등급: 위의 3가지를 모두 정확히 수행하고, 적절한 논증력과 표현력을 갖춘 경우
- 2등급: 위의 3가지를 모두 수행했으나,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 3등급: 위의 3가지 중 2가지를 정확히 수행하고, 적절한 논증력과 표현력을 갖춘 경우
- 4등급: 위의 3가지 중 2가지를 수행하고,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 5등급: 위의 3가지 중 1가지를 수행하고, 적절한 논증력과 표현력이 갖춘 경우
- 6등급: 위의 3가지 중 1가지를 수행하고,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 글자수에 제한(900자±100자)이 있으므로, 800자 미만의 경우 아래와 같이 하향 평가한다.

700자~799자: 1등급 하향, 600자~699자: 2등급 하향, 600자 미만: 6등급 부여, 백지답안: 7등급 부여

【문제 2】배점 50점

| 영역 | 세부내용 | 배점 |
|------------------------|--|----|
| 이해력 | 제시문 <가>의 세계 경제환경의 새 패러다임을 이해하고, 이를 배경으로 ‘칩4’의 의미를 해석하였는가? | 5 |
| 비판적 분석력과 창의적 사고력 | 한국과 미국의 반도체 동맹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의 딜레마는 무엇인지 논리적으로 서술하였는가? | 20 |
| | 균형적 외교 노선 구축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는가? 한국의 역할과 대응 방향에 대한 견해를 설득력 있게 논술하였는가? | 20 |
| 논리적 표현력 | 정확한 어법과 표현을 사용하여 서술하고, 딜레마와 대응 방향에 대한 안배가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5 |

문제 2번의 답안은 다음의 네 가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첫째, 제시문 <가>에서 문제가 된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배경으로 전개되는 <라> 제시문의 ‘칩4’ 동맹의 의미를 파악해 기술하기 (5점)

- ① 기존의 세계화와 차별되는 글로벌 기업들의 공급망 재구축에 관련된 사항의 이해 (2점)
- ② 지정학적 가치 부상에 대한 이해 (온쇼어링 등이 강조되고 있는 현상) (3점)

둘째, 제시문 <라>의 사례와 같이 한국이 미국과 동맹 연대를 이룰 때 예상되는 중국의 반응을 예측하고, 이를 통해 한국이 처한 딜레마를 기술하기 (20점)

- ① 세계화 시기 미국의 다국적 기업의 분업을 통한 경제적 이득을 획득하였으나, 중국의 성장에 따라 미국의 경제적 입지가 축소되는 바를 우려하여 새로운 전략을 구성하는 상황에 대한 이해 (5점)
- ②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과 ‘칩4’를 형성하는 미국의 의도와 이를 통해 한국이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성과를 예측하고 기술 (5점)
- ③ 한국이 미국과 반도체 산업 등 경제 동맹에 참여할 경우 중국의 입장 (5점)
- ④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자택일적 입장을 결정할 수 없는 딜레마 (5점)

셋째, 제시문 <마>의 제시문에 나오는 ‘IPEF’ 가입 등 일련의 공조 체계 연대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어떻게 관련이 되어있는지를 설명하고, 이 가운데 균형 있는 외교의 노선을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한국의 입장과 대응 방향을 논리적으로 서술하기 (20점)

- ① 한국이 ‘칩4’에 이어 ‘IPEF’에 가입할 때 예상되는 국제 정세의 서술 (5점)

- ② 미국과의 동맹은 지정학적 가치가 부상하는 가운데 상이한 입장으로 비쳐질 수 있음을 지도를 읽어 기술, 중국이 경제적 압박으로 한국의 미국과의 동맹을 통제하려 하지만 중국 역시 수출입 비중이 한국과 상당한 비중을 지니고 있음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의 예측 (5점)
- ③ 미국과 중국의 자국 이익을 우선으로 한 패권 다툼에서 한국은 중견국으로서 위치를 굳건히 해야 함에 대해 기술 (5점)
- ④ 균형적인 외교를 구축하고 중견국으로서 한국의 역할과 책임, 기여 등에 대한 가치적 노선을 공고히 해야함을 기술 (5점)

넷째, 정확한 어법과 표현을 사용 및 내용 구성의 안배 (5점)

- 용어의 사용과 문장의 구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고, <라>의 내용의 딜레마에 대한 논술과 <마>의 한국의 대응 방향에 대한 논술의 분량이 적절하게 안배되었는지 평가 (5점)

앞에서 제시한 내용과 조건에 의거하여, 답안은 다음과 같이 6등급으로 평가한다.

- 1등급: 위의 4가지를 모두 정확히 수행하고, 적절한 논증력과 표현력을 갖춘 경우
- 2등급: 위의 4가지를 모두 수행했으나,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 3등급: 위의 4가지 중 3가지를 정확히 수행하고, 적절한 논증력과 표현력을 갖춘 경우
- 4등급: 위의 4가지 중 2가지를 수행하고,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 5등급: 위의 4가지 중 1가지를 수행하고, 적절한 논증력과 표현력이 갖춘 경우
- 6등급: 위의 4가지 중 1가지를 수행하고, 논증력과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 글자수에 제한(900자±100자)이 있으므로, 800자 미만의 경우 아래와 같이 하향 평가한다.

700자~799자: 1등급 하향, 600자~699자: 2등급 하향, 600자 미만: 6등급 부여, 백지답안: 7등급 부여

8. 예시답안

【문제 1】

제시문 <가>는 세계화의 새로운 국면 혹은 탈세계화의 변화 속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산업 공급망을 본토와 가깝거나 동맹국으로 재편하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글로벌 공급망을 통한 자유로운 교역과

시장의 개방성이 특징이었다. 하지만 견고하다고 믿었던 세계화의 양상은 브렉시트와 미국 우선주의로 대변되는 보호무역주의의 대두,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쇠퇴 중이다. 팬데믹은 상호 호혜적이었던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가 마비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결정타였고, 이에 따라 공급망 마비 현상을 겪은 글로벌 기업들은 지속 가능성과 회복력을 갖춘 새로운 분업체제로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을 시도하게 되었다. <가>의 니어쇼어링과 프렌드쇼어링은 변화하는 세계화의 양상 속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해 선택한 방안이다. 재난 상황 혹은 정치적인 갈등 상황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을 피하는 것이 기업들에게 최우선 과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제시문 <나>는 보호무역주의 기조의 부상,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패권 경쟁,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마비가 초래한 탈세계화 현상과 더불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나타난 신냉전 구도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탈세계화 현상은 국제 분업화를 축소시켜 장기적으로 인건비 상승, 원자재와 식량, 반도체 등의 공급망 경색을 야기하여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신냉전 구도는 세계 경제의 블록화를 촉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최근 러시아가 유럽으로 공급하던 천연가스를 무기화한 것과 같이 특정 상품과 자원의 무기화가 진행될 수 있고 이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여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암묵적으로 지원하며 미국 중심의 서방세계와 대립하는 것은 이러한 신냉전 구도 형성의 우려를 자극한다. 이는 과거 냉전 시대에서처럼 ‘경제의 블록화’를 촉진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문제 2】

제시문 <가>는 최근 글로벌 기업들의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나타나는 온쇼어링, 니어쇼어링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미국은 해외 생산기지 구축으로 세계화에 의한 국제적 분업화의 경제적 효과를 보았지만,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하는 위협 상황에 직면하여 제시문 <라>의 지도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환태평양 국가들과 동맹하는 전략을 구상하였다. 미국이 한국, 일본, 대만과 ‘칩4’를 형성할 경우, 중국 대비 4배 이상의 반도체 생산능력을 갖추게 되면서 원천 기술의 경쟁력은 유지하고, 중국의 반도체 굴기도 견제할 수 있다. 한국이 칩4 반도체 동맹에 참여함으로써 가치 동맹국 간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 우위를 차지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중국을 배제한 미국과의 일방적 반도체 동맹은 중국을 자극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 미국과의 동맹은 신뢰적 안보를 토대로 한다.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반도 분단 상황과 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한다면 한국에 대한 중국의 선의를 장담할 수 없다. 안보가 바탕이 된 미국과의 동맹이나, 안정적인 중국과의 경제 교류냐에 대한 양자택일의 상황은 한국의 딜레마이다.

제시문 <마>의 상황과 같이 한국이 ‘칩4’에 이어 IPEF에 가입한다면 중국은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무기로 한국을 압박할 것이다. 하지만 중국 역시 중간재의 대한민국 수출입 비중이 상당하여 한국과 일방적으로 대립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사이에서 한국은 평화와 공존을 위해 역할과 책임, 그리고 기여할 바를 모색하여 중추국으로서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 안보와 경제적 안정이라는 양날의 검을 쥐고, 강대국의 자국 이익을 우선으로 한 패권 다툼을 견제할 수 있는 가치 외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경제·안보·재난 등의 환경 변화를 신중히 고려하여 지정학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리적 경제 외교에 주력하여야 한다. 즉, 안보가 보장되고, 경제적 지속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는 실용주의 노선을 바탕으로 한 대응이 필요하다.

VI-5. 문항카드: 논술우수자전형(자연계열)

[성신여자대학교 문항정보]

1. 일반정보

| | | |
|----------------------|---------------------|------------------------|
| 유형 | 논술고사 | |
| 전형명 | 2023학년도 논술우수자전형 | |
|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 자연 계열 (수학) / <문제 1> | |
| 출제범위 | 교육과정 과목명 | 수학 II |
| | 핵심개념 및 용어 | 다항함수의 도함수, 평균값 정리, 정적분 |
| 예상소요시간 | 25분 | |

2. 문항 및 제시문

<문제 1>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다항함수 $g(x)$ 의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고, 함수 $g(x)$ 에 대하여 사차함수 $f(x)$ 를

$$f(x) = x \int_0^x g(t) dt$$

로 정의할 때 $f(3) = 0$ 이라 하자.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총 25점]

- (1) 다항함수 $g(x)$ 와 $f(x)$ 를 구하시오. [10점]
- (2) 구간 $[0, 3]$ 에서의 $f(x)$ 의 평균변화율을 구하고, 그 값과 $f'(b)$ 가 같게 되는 실수 b 의 값을 구간 $(0, 3)$ 에서 구하시오. [7점]